

저자 (Authors)	黃良秀
출처 (Source)	어문론집 18 , 1985.1, 23-40(18 pages) The Journal of Language & Literature 18 , 1985.1, 23-40(18 pages)
발행처 (Publisher)	중앙어문학회 The Society Of Chung-Ang Language &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59097
APA Style	黃良秀 (1985). 新羅鄉歌의 浪漫性 內質考 - ① 愛情篇. 어문론집, 18, 23-4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9 16:3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鄉歌의 浪漫性 內質考

—① 愛情 篇—

黃 良 秀*

〈目 次〉	
序 言	1. 離 別
I. 鄉歌의 浪漫의 一般性	2. 戀 愛
II. 鄉歌의 浪漫의 特殊性	IV. 鄉歌 愛情詩의 內質
III. 鄉歌의 愛情詩	結 言

序 言

本稿의 浪漫性이란 西歐의 文藝思潮의 影響에서가 아니라, 韓國民에게서 흐르는 情燥의 藝術 特히 文學上에서 表露되는 美的價値의 評價를 韓國 固有의 側面에서 考察해 보려는 内容들이다.

그 方法에 있어서는 韓國民의 精神上으로 自然과 人生의 接觸에서 釀造되어진 韓國 自體만으로서의 文學의 變遷過程을 살필 수도 있겠고, 或은 當時의 對外的 다른 나라의 文學과의 接觸過程에서 이루어진 比較文學的 領域에서 다루어야 될 境遇도 없지 않다. 鄉歌 二十五首中에도 三國遺事에 所載된 十四首에서 以上の 兩面의 見解를 維持하면서 本鄉歌의 浪漫性을 먼저 愛情的(사랑)側面에서 만 마무리 해 보려 한다.

I. 鄉歌의 浪漫의 一般性

人間의 精神上的의 美的具現을 藝術이라고 한다면 그 藝術 가운데 言語記述를 通하여 形成된 文學에 있어서, 이 文學에 바탕이 되어 있는 精神的 作業을 살펴보면, 이 人間精神이 自然과 人生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生活條件의 變遷에 따라, 마찬가지로 한 個性의 凝結體로서의 體質도 維持하며 내려왔던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新羅에서 이루어진 鄉歌의 浪漫性이란 當時 新羅의 生活範圍로 보아, 新羅만으로 局限하여 生覺할 수 없는, 그를 前後하는 歷史의 運命의 흐름 속에서 “한 時代의 文學性格”을 말

* 博士課程 修了, 韓國聖書神學校 教授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西歌와는 文化交流가 트이지 않은 때이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슷한 文學的 類似한 條件 環境 生活下에서 이루어진 文學圈이라면 同一한 文藝思潮의 範疇로 鄉歌文學을 통해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로맨티시즘이란 藝術이나 思想이나 또는 生活等に 있어서 어느 一定한 方向을 지닌 精神態度에 對해서 云謂되는 것이므로 自覺의이며 反省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一般的인 精神態度를 意味하는 로맨틱시즘은 다시 狹義로 歷史的 意味의 로맨틱시즘과 區別되지 않으면 안된다. W. 케이터는 스탕달의 말을 敷衍하여 로맨틱시즘이란 그 本質的 特性으로 말한다면 모든 時代에 있어 여러 가지 정도로 낱말이 作家가 그들에 제작에 나타나는 精神이라고 말할 바 있다. 또는 青年時代가 一般的으로 ‘로맨티시즘’이고 ‘리얼리즘’의 壯年을 거쳐 象徴主義의 老年에 접어든다는 比喩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歷史的인 意味에 있어서는 로맨틱시즘이란 어느 特定한 時代의 思潮로서 지난 날에 있어서 단 한 번 一定한 期間에 걸쳐 일어났던 運動이었던 것을 뜻한다」¹⁾

新羅는 그나름으로 그를 中心하여서 唐과 高句麗와 百濟와의 사이에서 이러한 要素들을 內包할 수 있었다. 即 西歐의 浪漫主義가 單純한 感傷性에서 意志的으로 變遷의 段階를 밟아 眞實 絕對한 實在로 確立되어 現代에 이르렀다고 하면 新羅의 浪漫性은 그들의 獨特한 個性을 가지고 辨證法的으로 이들을 克服한 新羅의 特有한 浪漫性을 지니고 왔다²⁾ 고도 하겠다.

그러나 다시 韓國詩歌의 淵源을 溯及해 올라가 본다면 거기에는 陶自然的 庶物崇拜의 信仰이 詩歌制作을 위한 人間精神을 支配했다고 할 수 있다. 그 例로 現存해 있는 古歌類를 살펴 본다면

첫째로 筮蓍引歌, 黃鳥歌와 같은 男女愛情 其他 사랑을 主題로 한 悲哀로운 것과 둘째로 龜旨歌 碓樂等과 같은 勞働의 快感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고 未來志向의 信仰觀이 後約으로서 남아 있게 되어 은근하며 끈기 있는 餘韻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나라의 此類의 種과는 크게 다른 點이다.

前者에 있어서는 그 “사랑”이 男女間에 와서는 劇化되어 愛慾的 性露出까지도 거리낌없이 敘述하면서도 어딘지 깊은 뜻을 暗示하여 놓는다.

「性的 衝動(Sexual impulse)이 人間精神의 最高의 文化的 藝術的 및 社會的 創造에도 關與해서 커다란 影響을 하여 왔다고 主張된다」³⁾

「그 때 그것은 昇華(Sublimate)된다. 바꿔말하면 本來의 性的 目標로부터 벗어나서 社會的으로 한 層 높은 이미 性的이 아닌 目標로 돌려진다」⁴⁾

이것을 新羅鄉歌中の 處容歌에서,

1) 『比較文學』, 全圭泰, pp. 261 ~ 262.

2) 『語文論集』, 「新羅鄉歌의 浪漫性」, 黃良秀, p. 58.

3)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精神分析入門), Sigmund Freud 著, 李庸護譯 p. 19.

4) Ibid. p. 19.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足良羅
 二躬隱吾下於叱古 二躬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이에 對한 後約으로서 다음의 事實을 因하여 處容의 諦念 또는 自慰로 또다른 社會的 意味로까지 象徵 昇華되고 있다.

「時神現形 跪於前日 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 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⁵⁾

다시 後者인 勞働의 屬性의 詩歌類의 一例로서 確樂을 들 수 있다. 本歌詞는 逸失되어 저 確樂條의 說話만을 通하여 볼 때, 前者와 同一한 後約의 妙味를 알 수 있다.

「嘗慕榮啓期之爲人 以琴自隨 凡喜怒哀歡不平之事 皆以琴宣之 歲將暮 隣里春粟 其妻聞杵聲曰 人皆有粟春之 我獨無焉 何以卒歲 先生仰天·嘆曰 夫死生有命 富貴在天 其來也不可拒 其往也 不可追 汝何傷乎 吾爲汝作杵聲以慰之 乃哉琴作杵聲」⁶⁾

위로 미루어 보건데 現實의 自己의 孤獨, 悲哀, 困苦, 窮乏의 生活을 悠悠自若하게 거문고를 두들기면서 이를 因하여 아내에게서 받은 受侮와 슬픔을 自己補償의 活動(self reuarding artivity)으로 轉換시켜 自慰와 기쁨을 얻고 있다.

이는 兩者 함께 그들의 삶에 있어서 思想的 支柱를 이루고 있는 어느 信仰의 影響이 詩歌制作에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新羅民이 가지는 그들의 文學上의 性質로서 必然코 未來志向의 悲觀性 또는 樂觀性을 內包한 浪漫的 體質化되어 있는 모습이라 하겠다.

II. 鄉歌의 浪漫的 特殊性

한 나라의 文化現象은 그 民族이 生存하는 環境과 精神內容 사이에서 特徵지워지는 것이겠지만, 나아가 한 民族의 어느 特定한 時代의 思潮로서 지난날에 있어서 단 한번 一定한 期間에 걸쳐 일어났던 運動⁷⁾으로 그 時代로서 文學特性을 區劃지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둔다.

이러한 뜻에서 新羅鄉歌의 浪漫性은 前項의 浪漫의 一般性을 超克하여 新羅 나뭇의 其時代의 自然 社會, 宗教, 思想等의 密接한 關係에서 固有한 新羅文學으로 形成되어 갔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新羅의 鄉歌란 其時代에 生存한 新羅民이 當時의 既成觀念인 佛敎의 潤色으로 그의 敎化 乃至 祈願과는 달리, 古來로의 韓國民의 血脈을 타고 흐르는 念願과 生活에서 淵源된 原始宗敎로서의 巫俗의 信仰心 위에 儒敎의 學習을 克服하고 半仙半佛의 融合된⁸⁾ 또 하나의 新羅的 새로운 詩歌의 境地가 吏頭表記式 文字로 比較的 韓國語感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의 生活을 情緒的

5) 三國遺事 卷二 處容歌條.

6) 三國史記 百苗先生條.

7) 『比較文學』, 全圭泰, pp. 261 ~ 262.

8) 『朝鮮漢文學史』, 金台俊, p. 36

表象化할 수 있었다.

㉠ 韓國 本來의 土俗의 또는 庶物崇拜의 自然神(天神, 始祖神, 雜神)의 新祠와 祭壇을 통한 宗教儀式

㉡ 道敎가 中國 固有信仰과 佛敎思想을 加味한 思想의 傳來와 文學의 理解⁹⁾

㉢ 佛敎의 輸入과 儒佛仙 三敎의 融合으로 因한 韓國土着化된 信仰觀¹⁰⁾

Ⅲ. 鄉歌의 愛情詩

1. 離別

1) 慕竹旨郎歌

지나간 봄이 그리워라
모든 것이 시름겨워 눈물 짓는 데
고웁던
얼굴마자 주름 지려요
살 즈음에
구태어 보려합니다만
郎이여! 그리움에 떠나는 길이라서
다복썩 우거진 집 고된 밤이여도 새려요

本歌는 孝昭王代 竹旨郎의 徒得鳥가 郎을 思慕하여 지은 노래이며 竹旨郎이 金庾信의 副師로서 統三韓后 眞德, 太宗, 文武, 神文 四代冢宰에다 安定厥邦한 偉人이고 보면 宜當 있음직한 說話이지만 이 가운데서 當時의 宗教의 信仰 思想을 볼 수 있다.

「竹旨嶺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卦州理 隔一朔 夢見居士 入干房中 空家同夢 警佐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人曰 居士死有日矣 使來還告其死 與夢同日矣 公曰 殆居士誕於吾家爾 使卒卒修葬於嶺上北峯 造石彌動一軀 安於塚前妻氏 自夢之曰有娠 既誕 因名竹旨」¹¹⁾

에서 竹旨郎에 關한 胎夢의 緣起가 金庾信의 出生의 轉生說話의 一種으로 佛家의 輪廻 緣起說이 加味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兩者의 說話構造는 同一한 範疇 안에서 形成되어 있으나

金庾信에서는 — 楸南이 억울한 死刑을 당함에 있어 限 鬻힘으로, 「吾死之後願爲大將 必滅高麗矣」란 誓願한 業力에 의하여 舒玄公夫人에 托胎 轉生하여 金庾信將軍의 出生이라면!¹²⁾

竹旨郎은 — 牟梁里로 因한 緣故로 述宗公에 얽힌 일이라는 하나,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

9) 『韓國文學背景研究』(上), 朴辰義, p. 77.

10) 前學: 『語文論集』③, 「新羅鄉歌의 浪漫性」, 黃良秀, p. 58.

11) 三國遺事 卷二 孝昭王代 竹旨郎條.

12) 『韓國文學의 思想的研究』(上), 「國文學의 佛敎思想研究條」, 金起東, p. 51.

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赴州理 隔一朔 夢見居士入于房中 空家同夢……妻氏 自夢之日有娠 既誕」으로 能作因의¹³⁾ 因果 輔廻의 結果로 胎生된 것이다.

• 一·二句와 三·四句는 聯句로서 毛多居叱과 白史를 相應調和시켜 가며 人生의 變化無常함을 自然의 現象을 通하여 如實히 描寫해 놓고서

• 五·六句에서는 이러한 世上이지만 꼭 相面되리라는 期待를 잃지 않고 있다. 卽 「逢鳥支惡知 作乎下是」의 「下是」는 元來 疑問法 將然叙述法의 兩義를 갖은 것으로 反語의 肯定을 內包하고 있는 強調法으로서, 놓는 척하면서 속실 움치는 아쉬움이 깊은 餘韻을 남기고 있다.

梁柱東博士는 麗謠 가시리條에서 「檣縱·虛實」「首尾雙關의 章法」¹⁴⁾이라고 했지만 바로 本歌의 이러한 點에서 前學한 後約의 빌미가 아닐 수 없다.

• 七·八句에서 이 아물지 못한 五·六句까지에서의 빌미를 다잡으려고 「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 宿尸夜音有叱下是」라 했다. 이같이 五·六句未에서와 八句未에서의 「下是」의 二重使用法은 더욱 歌意를 漸高시키고 있다.

2) 讚耆波郎歌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떠나시는 가요?
새파란 냇물에
婆郎의 모습이 계십니까그러
이젠 냇자갈 위에
郎의 지니셨던
마음의 끝을 따르려 합니다.
아 잣나무 가지 드높아
서리를 모를 花郎님이시여!

本歌는 景德王代에 忠談師가 郎徒(耆婆郎)을 그리며 讚揚하여 부른 노래¹⁵⁾이며 問答式詩歌의 濫觴인 바 戲曲의 立體感까지 느낀다.

• 一句 - 三句는 달(月)에 對한 問이요

• 四句 - 八句는 달의 對應으로써

• 九句 - 十句는 合奏의 呼應이 되어, 서로가 dramatic 하게 엮어져 三部立體的인 느낌을 주는 詩歌인데 前出 慕竹旨郎歌와는 同一한 「그리움」을 지니면서도 本歌에서는 哀絶感이 가히 없고, 도리어 崇仰과 感激으로 回想의 心緒를 펴가고 있어 兩者가 對照的이다.

13) Ibid, p.32.

14) 『麗謠箋注』, 梁柱東], p.427.

15) 三國遺事 卷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元來 浪漫性이란 「그리움」의 바탕에서 緣由되어 있지만, 이것이 實相을 붙잡지 못하고 虛空칠 때 自家撞着으로 뺏아서 感傷的 悲觀的 虛無의 狀態로 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境遇에 는 도리어 想像力과 感激性과 情熱 衝動으로 希望과 기쁨을 안겨 준다. 그러나 本歌의 作者인 忠談師는 죽음이라는 事實을 속절없는 虛無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自然의 現象 속에서 本質的인 不變의 實相을 發見하고 그 不變한 原質의 기쁨을 攄得함이니 이는 佛敎에서 말하는 「非非一相 非非異相」¹⁶⁾과 「色即是空 空即是色」¹⁷⁾ 나아가서는 消滅될 萬象 너머에는 無爲自然의 世界와도 相通되지 않을 수 없다.

「道沖而用之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挫其銳解其紛和其光 同其塵 湛兮似或存 吾不誰之子 象常之先」¹⁸⁾

「天長地久 天地所以 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久」¹⁹⁾

- ① 흰 구름을 헤친 달, 郎의 淸明한 面貌
- ② 사과란 냇가에서 씻기운 말끔한 물자갈 위에 깃든 郎의 지니셨던 行蹟
- ③ 드높은 잣나무의 孤高함으로 터득되는 「花判」의 氣象

이 三者의 image는 具體象으로 再現되어 立體感을 주면서 歸納的 三段論法을 經한 듯, 普遍實한 郎으로 抽出해 념을 通하여 詩的 感興을 깊게 한다. 그리고 終句에 「花判也」는 陳痛을 겪고 出産된 嬰兒의 感懷가 없지 않다.

3) 怨 歌

「모든 잣나무는
가을에도 일지지 않으니
너를 어찌 잊으랴」시던
우러른 얼굴 변하심은 겨울인가 봄니다.
달 그림자 옛 못에
지나는 물결을 닦하는 양
얼굴일랑 바라보나
세상이 모두 싫기만 하구려

本歌는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園基於宮庭柏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柏樹 信忠與拜 隔數日 王卽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²⁰⁾

16) 『大我起信論講話』, 井上專精, p. 96.

17) 『盤苦心經講議』, 洪抄法藏, p. 8.

18) 道德經(老子) 四章

19) Ibid, 七章

20) 三國遺事 卷五 信忠桂冠

라 했음에 前 兩歌(慕竹旨郎歌·讚耆婆郎歌)가 思慕의 念에서라면 此歌는 哀恨이 지나쳐 怨望으로 制作된 것이다.

이러한 類의 怨望이란 限되도록 그리운 님에의 思慕가 지칠대로 지쳐 도리어는 怨望으로 맺쳐 病으로까지 되어버린 것이리라.

此種, 離別을 主題로 함에 있어 물(水)과 나무(木)는 종종 詩歌詞 가운데 素材로서 例舉된다.

① 江 水

「寧赴湘流葬於江魚之腹中安能以皓皓之白而蒙世俗之塵埃乎
漁父莞爾而笑披袖而去乃歌曰滄浪之水清兮可以濯吾纓滄浪之水濁兮可以濯吾足遂去不復與言」²¹⁾

筌篥引歌에서는 「公無渡河 公竟渡河 隨河而死 公將奈何」의 說話에서

「高晨起刺船而濯有一白首狂夫 被髮提壺亂河流而渡 其妻墮而止之不及 遂墮河水死 於是投筌篥而鼓之 作公無渡河之曲」²²⁾

② 栢 木

讚耆婆郎歌에서는 栢木이 耆婆郎과 忠談師의 離別에서 高潔한 郎의 人格의 回想으로서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라 되어 있거니와, 本歌에서는 特別히 孝成王과 信忠의 사이의 言約의 信標로서 象徵化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때는 人生의 吉凶 盛衰의 豫標로도 例舉되기도 한다.

「延喜九年 陽成局竹栢葉 有傷者占曰 元子凶」²³⁾

本歌 「物叱好支栢史 秋蔡尸不多爾屋支隨米 汝於多支行齊教因隱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에 서는 다음과 같다.

「宮廷栢 孝成王在潛邸 嘗與金信忠 圍碁於栢樹下 謂曰 他日我不忘汝 汝亦不改貞操 有所勇者 有如此栢 未幾王 即位錄功臣而遺信忠 信忠以歌貼於栢樹 樹忽枯 王聞之 驚曰幾忘手角弓矣 郎賜爵 拍乃蘇」²⁴⁾

이렇게 栢木을 圍繞하고 兩人的 生活은 離合逢別의 人間常情에 따라 기뻐도 지고 슬퍼도 졌다. 그러므로 栢木은 그들의 歷史를 말해주는 唯一한 證標이기도 하며 나무의 異相은 王權의 盛衰와 마련이 있으므로 木異가 孝成王의 주목을 가장 쉽게 끌 수 있었다.²⁵⁾

• 一句·二句에서, 起句 「物叱好支栢史 秋蔡尸不多爾屋支隨米」라 하였고, 二句에서 이 眞心を 다 주어 含蓋性 있게 드러나 보이며,

21) 『楚辭集注』, 朱熹撰, 藝文印書館印行, p. 220.

22) 古今注 卷中 音樂 卷二.

23) 增補文獻備考 卷十一.

24) 增補文獻備考 卷百六 樂考一七

25) 『韓國文學의 思想의 研究』(下), 「新羅歌謠의 原始宗教思想」, 林基中, p. 37.

• 三句에서 「汝於多支行齊教隱」하면서 過去의 서로의 盟誓를 끄집어 내어 탕집은 다음 激情을 가라앉치고 順順히 事理를 따져 가며,

• 四句·五六句·七八句의 同質語句를 反復하여서 세 차례나 뇌까리면서 隱然히 속실을 내보이고 있다. 特히 五·六句의 「月羅理影支古理因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의 自然을 통한 直喻는 民族의 自然을 生의 活力(vitalism)의 本質을 띄고 싸우며 啓示라는 無限의 言語가 象徵된 알파벳」²⁶⁾으로 相通된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같은 얼굴의 모습들이며 한 나무에서 피는 꽃들이다.
위대한 啓示의 언어들이며
無限의 象徵이며 형태들이다.

(序詩 prelude) 워즈워드·吳世榮譯

레바논아 네 門을 열고 불이 네 柏香木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甯할지어다?²⁷⁾
여호와의 나무가 雨澤에 洽足함이어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柏香木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
입이어 鶴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다.²⁸⁾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²⁹⁾

以上에서 柏木은 나아가 信仰的 對象의 象徵으로 이스라엘에서는 聖書 가운데 記錄되어 있다. 다른 나무에도 다음과 같다.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³⁰⁾

4) 願往生歌

달님이시여 이제
서쪽까지 가시려는가?
無量壽佛 앞에
일러 사뢰옵소서
다짐 깊으신 阿彌陀佛께 우러러
두 손 모두어
願往生願往生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뢰옵소서
아! 이 몸을 남겨 두고
四十八大願 이루실까

26) 『韓國文學研究方法論』, 「浪漫主義의 理念」, 吳世榮, p. 5.

27) 舊約 스가랴書 11章 2節.

28) Ibid, 詩篇 104章 16~17節.

29) Ibid, 호세아書 14章 8節下.

30) 三國遺事 古朝鮮條.

本歌는

「一日 日影拖紅 松陰靜暮 窗外有聲 報云 某已西往矣 惟君好住 速從我來 莊排闥而出 願之 雲外有天樂聲 光明屬地 明日歸訪其居 德果亡矣 於是乃與其婦收骸 同營蒿里 既事 乃謂婦曰 夫子逝矣 借處何如 婦曰可 遂留 夜宿將欲通焉 婦斬之曰 歸求淨土 可謂求魚緣木」³¹⁾

여기에 한 女性을 두고 廣德과 嚴莊과의 사이에서 俗間 男女情分과 佛敎的 信仰의 世界가 무엇인가를 分明하게 말하고 있다.

三國時代의 彌勒信仰을 根幹으로 하고 있던 것이 統一前期로 하여 彌陀信仰으로 옮겨갔으니 이는 自力往生을 根幹으로 하든 것이 池力往生을 根幹으로 바꿔 갔음을 말함에서³²⁾ 廣德의 妻는 이 大意를 表明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前期 別離類의 內容과는 다른 純粹한 宗敎的 表白이라고 하는 點에서 오직 願往生 願往生 淨土發願의 絶實함을 엿볼 수 있다.³³⁾

여기에서 廣德의 妻가 實際人인가 또는 神格化한 것인가의 如否는 且置해 두고라도 此女人을 中心하고 德莊間의 愛情을 媒介로 來世 今世를 對照하여 往生淨土의 秘法을 暗示하였고 求道의 要諦를 元曉의 淨現法³⁴⁾으로 終結지었다.

그러나 이 思想을 描寫함에 있어 夫를 그리는 婦의 情宜의 端緒를 달(月)에게 依托하여 呼訴함은 無爲自然의 道家的 屬念이 人生無常觀과 接合되며 一面 佛敎的 信仰의 主題에도 其 本質을 貫徹했음을 一考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中世期 西歐에 浪漫主義가

「浪漫主義의 有機體的 自然觀을 起緣論的 立場에서 說明하는 가운데 그 汎神論的 屬性과 카도릭리즘에의 轉向을 指摘하고 있다」³⁵⁾

고도 했지만, 우리 나라 新羅統一기의 佛敎信仰의 內密에는 이와 비슷하게도 汎神論的 道敎的 性分과 佛敎的 內容이 中國에서도 融合됨³⁶⁾ 같이 韓國의 仙敎와 佛敎는 쉽사리 接合됨을 알 수 있다.

「守庚申의 習慣이나 直星祈禱의 習慣, 全國到處의 寺刹에 있는 七星閣과 山神閣의 崇拜思想은 道敎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³⁷⁾

• 一句·二句에서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遺」라고 던지시 西方으로 가는 달(月)인 줄 알면서 새삼 反問함이요 그 뜻이 간절함이다.

「南無至心 歸命禮西方阿彌陀佛 現在西方去此界 十萬億利安樂土 佛世尊號阿彌陀 我願往生歸命禮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³⁸⁾

31) 三國遺史 卷九 廣德 器莊條

32) 『韓國文學背景研究』(上), 朴晟義, p. 185.

33) 『新羅佛敎文學研究』, 金雲學, p. 259.

34) 『鄉歌詳解』, 金俊榮, p. 68.

35) 前舉: 『韓國文學研究方法論』, 吳世榮, p. 60.

36) 前舉: 『韓國文學背景研究』(上), 朴晟義, p. 25.

37) 『韓國文學의 思想의 研究』(上), 「韓國詩歌의 道敎思想研究」, 李鍾殷, p. 410.

38) 前舉: 大正新修 大藏經 第四七卷 諸宗部. 雲覺法師의 「讚阿彌陀佛偈」

即 西方 西天이란 佛敎에서는 極樂淨土 理想郷으로 指稱된다. 西域(天竺) 西藏 西쪽은 太陽도 별도 달도 다음 날을 期約하며 그곳으로 기우러 진다. 죽음은 現實에서 볼 때 슬픈 일이다. 그러나 來世의 樂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塵埃나 無常을 등지고 기쁨의 彼岸으로 가는 길목도 된다. 그러기에,

- 三句·四句에서 一句·二句를 이어받아 곧 「無量壽佛前乃 惱比古音多可支白遺賜立」라 했으며
- 七句·八句는 前者의 聯句로써 「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遺賜立」했는데 四句·八句의 終句에 있어 「白遺賜立」의 反復使用과 十句의 終句에 가서 「成遺賜去」反語的 疑問終結語尾 使用은 더욱 念願의 怨曲함을 내세우고 있으며
- 終句 四十八大願의 終句를 凝集頂斷함에 當時 普遍化되었던 四十八大願中 第三十五願 「永 女身願」「女人往生願」³⁹⁾의 眞諦를 表白한 것이라 하겠다.

5) 祭亡妹歌

낭고 죽은 길이
 여기 있음이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갔는가?
 어느 초가을 바람에
 여저기 지는 이파리처럼
 한 가지에 나서
 가는 곳 모르는구나
 아 彌陀刹에서 맞아 볼 나
 道 닦아 기다리련다.

本歌의 作家 月明師는 善郷歌者 吹笛者로서 神通力이 컸던 것으로 보아 또 呪力的 效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既而日催即滅 王嘉之 賜品茶一襲」……

「善月夜 嘗月夜吹過門前大路 月馭爲之停輪 因名其路曰月明里 師安以是著名 師即能俊大師之門人也 羅人尙郷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 非一 讚曰

風送飛錢資逝妹 笛搖明月住姮娥
 莫言兜率連天遠 萬德花迎一曲歌」⁴⁰⁾

本歌를 살펴 보건데 兄妹之間의 情을 한 나무에 피었다 지는 나무잎들에 比喩하고 人生의 無常함을 슬퍼하면서 往生極樂의 道를 닦겠다고 말하고 있다.

39) 『古歌研究』, 梁柱東, p. 518.

40) 三國遺事 卷五 明月師 興率歌條.

이는 願往生歌와 함께 彌陀淨土를 읊은 思想으로, 가버린 妹를 위하여 四九齋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前者 願往生歌가 即身の 往生思想을 읊은 노래라면 이는 死後 靈魂의 往生引導를 위한 노래였던 것이다.⁴¹⁾ 그리고 齊中儀式의 紙錢에 關하여 「南史」에 “吾今名常死 壺中大紙一千 以通九泉之路”라 했으며 전승의 葬送儀禮에도 사자에게 주는 路資로 인식되어 있음⁴²⁾이다.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 忽有警颺吹紙錢 飛舉向西而沒」

- 一句·二句까지는 萬人이 다 같이 忍受해야 할 죽음에 對한 宿命感을 前提해 놓고
- 五句·六句에서는 祭亡妹를 因하여 느끼어지는 哀絶한 心事와 겨울도록 안타까운 人生의 虛無感을 가늠질없이 「叱矣彼矣」라 설레이며 몸부림치는 「落尸葉如」라고 如實히 描寫한 다음, 死後 不可思議한 人生에의 疑惑을,
- 七句·八句에서 되뇌거리다가, 七倒八起 佛教에 歸依함으로 大吾覺醒하여 毅然히 感歎詞 「阿也」로부터 始作 「彌陀利良逢乎吾 道修良侍是古如」라 끝맺음으로서, 뚜렷이 絶望에서의 修道諸行을 累하여 脫出口를 明示한 다음 未來 兜率天에서 期必 서로 맺어질 것을 後約하여 光明을 되찾는 彌陀淨土思想의 信仰詩이다.

2. 戀愛

1) 薯童謠

善花公主님은
 남 모르게 정을 나누고
 마동방을
 밤 모르게 안고 가다.

「第三十武王名璋 母寡居 菴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 小名薯童 器量難測 常掘薯蕷 賣爲治業 國人因以爲名 聞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一作善化) 美艷無雙 剃髮來京師 以暮菴餉閭里 群童親附之 乃作謠誘群童而唱之」⁴³⁾

本歌는 新羅에서 불리워 졌으나 百濟人 武王의 所作으로 되어 있느니만큼 百濟에서도 널리 알려 워 졌으리라 본다. 이 說話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非現實的인 狀況에서 薯童의 機智로 因하여 奇蹟的인 因緣을 맺는다. 그 利器가 바로 民謠였다는 事實이다. 即 그때 新羅는 벌써 骨品の 制度가 確立된 時期인 만큼 百濟는 그들의 敵國인 뿐 아니라 薯童은 百濟의 한 乞兒의 身分으로서 國際的인 和姦이 新羅로서는 許容할 수 없는⁴⁴⁾ 狀況이면서도 不拘하고 百濟의 薯童 自身の 뛰어난 智謀로인 하여 目的을 達成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本歌가 制作動機로 보아 考慮해 볼 點이 있다.

41) 『新羅佛敎文學研究』, 金雲學, 卩 pp. 267 ~ 269.

42) 前學: 『韓國文學의 思想的研究』(下), p. 77.

43) 三國遺事 卷二 武王條.

44) 『韓國漢文學史』, 李家源, p. 46.

첫째로, 本歌制作이 乞兒 薯童이었다는 것과, 이 노래가 新羅에서 群童들에 依하여 民衆에게 傳播됨에도 不拘하고 結局은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됨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것은 薯童이 바로 不利했던 當時 百濟人 自身들의 分身이며, 그들이 強國 新羅에 對한 不滿을 充足시켜 보려는 心理的 表象化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비록 新羅와는 對立的 相關關係에 處하여 있지만 그들 希望은 兩國間의 親和를 政策的 動機로써 하고 自身들의 優越性和 勇孟性を 잃지 않고 있었다.

세째는, 群童들에게 民謠를 부르게 했다.

民謠는 民衆心理의 最大公約數다. 그러나 이러한 心理의 凝集됨에는 社會的 恐怖, 不滿, 怨望 등의 解消를 위하여 必然的이며 自然스러운 狀態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民謠가 形成된 以上 그만큼 強한 傳播力과 影響力을 가지고 大衆 속에 들어가 階級과 空間을 超越하게 되는 것이다.⁴⁵⁾ 다시 말하면 薯童의 이 作謠方法은 強弱의 相互關係에 있어서 弱者가 取하는 슬기로운 打協的 手段發露이다.⁴⁶⁾

元來 어떠한 心理的 緊張狀態로부터 弛緩을 가져오려면 여러 方法이 있겠지만 가장 代表的인 것은 웃음(笑)과 노래(民謠)이다.

「心理的緊張으로부터의 解放感이란 恐怖나 壓迫을 迴避하거나 打協을 圖謀할 때 웃음의 境遇에 餘剩 에네르지는 言語作用과 呼吸作用에 特殊한 움직임을 준다」⁴⁷⁾

「賤人과 貴人は 사랑하려면 呪俗儀禮를 통한 呪歌나 呪物이 必要하다」⁴⁸⁾

네째는, 이러한 類의 說話를 溫達과 平岡公主와에서도 볼 수 있다. 微賤하게 자란 男子主人公이 新婦집에서 決定하지 않는 結婚을 公主와 하게 되나 나중에 多幸히 功業이나 異德을 行함으로 難關을 突破하고 드디어는 벼슬 또는 王召를 얻는다.⁴⁹⁾ 그러나, 薯童은 能動的이며 自意識的으로 大膽하게 他國境을 微浸하여 智略과 危險을 가지고 相對와 和姦하므로 幸福으로 이끌어 간다는 點이 素朴하면서도 自矜心을 損傷시키지 않는다.

「公主將至竄所 薯童出拜送中 將欲侍衛而行 公主雖不識其從來 偶爾信悅 因此隨行 潛通焉」⁵⁰⁾

2) 處容歌

서울 밝는 달에
밤 들도록 놀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 잠자리 보니

45) 『韓國民謠史』, 任東權, pp. 5~6, p. 33.

46) 前舉: 『韓國文學의 思想的研究』(下), 林基中, p. 71.

47) 『文學と 藝術의 心理學』, 大福幸 p. 103.

48) 前舉: 『韓國文學의 思想的研究』(下), 林基中, p. 71.

49)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鄉歌의 文學的 研究一斑』, 金烈圭, pp. 36~37.

50) 三國遺事 卷二 武王條.

다리가 넷이어라
 들은 내 아내이라
 들은 누 다리인고
 빼앗어늘 어찌하리오

本歌에 대하여 여러 意見이 있다.

「巫祖의 處容의 “本풀이”로서 그 本然의 姿態로 더듬을 수 있으니 處容歌의 巫歌 위에 덧붙인 插入歌謠이라 보여진다」⁵¹⁾

「本歌를 象徵的 表現으로 볼 때, 疫神欽慕之 戀爲人…… 竊與之宿이나 손님들 處容妻(男性神의 疫神) 곧 熱病을 앓는 處容妻로 정통적인 觀念的 表現法의 具體化」⁵²⁾

「處容郎의 傳承은 一種의 〈神聖傳說〉이다. 그것은 疫神을 驅逐하는 機能」⁵³⁾

「驅疫은 醫療呪所인 것이다. 疫神에게 해친 아내는 疫疾에 걸린 狀態이다」⁵⁴⁾

以上的 說等은 處容歌의 構造內容과 象徵的 表象임을 말해 주고 있으나 그 具象的 表現에 있어서 그것이 性的인 대담성을 가지고 形成되어진 客觀的 社會의 許容이 可能했음과 나아가 이것이 疫疾 및 惡鬼를 驅逐하는 儀式에 까지 發展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性的描寫가 當時의 社會生活에 一般化되었고 自由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前學 프로이드(freud)의 性的 衝動과 昇華에 關하여⁵⁵⁾ 言及되었거니와, 「性慾 및 戀愛란 이들 不完全한 것이 完全해지고자 하는 의욕 즉 반쪽들이 서로의 짝을 짓는 物質的 精神的 運動이라」⁵⁶⁾ 고도 말할 수 있다.

「東海龍喜 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其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于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戀爲人 夜之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作舞而退」⁵⁷⁾

는 其當時의 倫理觀에서 默過 못할 羞恥스러운 事件이지만, 이러한 性的으로 露骨的인 詩歌가 널리 詠唱되어 왔다는 것은 그 事件과는 또 다른 文化的 意味가 潛在되어 있는 것이다.

元來 우리 나라는 一夫多妻主義와 男尊女卑思想이 支配하고 있었다. 이렇게 生覺해 볼 때, 當時의 新羅는 母系的 原始社會制度도 아니었고 이미 王權中心으로 國家組織化되어 있는 第四十九代憲康大王代에 있어서 아니, 이 處容歌는 社會倫理와는 逆行되는 노래이다.

비록 說話이기는 하나 東海龍王七子인 處容이 男便으로써, 疫神이기는 하나 變爲人으로 男子가 되어 同宿하고 있음을 보고도, 그가 乃唱作舞하였음은 도리어 新羅民의 悠然함을 理解할 수 있다.

51) 『韓國歌謠의 研究』, 金東旭, pp. 121~122.

52) 前學: 『韓國文學의 思想的 研究』(下), 林基中, p. 37.

53) 前學: 『鄉歌의 文學的 研究一斑』, 金烈圭, p. 23.

54) Ibid, p. 34.

55) 前學: 「新羅鄉歌의 浪漫的一般性條」

56) 「韓國神話의 原初意義」, 全圭泰, p. 39.

57) 三國遺事 卷2 處容郎, 望海寺.

- ① 한 女性을 甚美하게 浮刻하려는 欲求와
 ② 男性들이 共通으로 느낀 排發의 性慾의 本能이 契機가 되어 潛在意識을 誘發시키려는 衝動
 ③ 倫理的 逆行性을 合理化하기 爲하여 疫神을 爲人 變貌하므로 處容處와 同宿하게 하고, 한편으로 處容으로 하여금 乃唱作舞하여 藝術的昇華를 遂行시키어 疫神을 感服시키는 權威를 얻게 하는 것이다.

「時神現形 弊於前曰 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이렇게하여, 處容歌는 「門帖處容之形 以僻邪進慶」하는 因習的 讎儀의 疫神 逐出의 方法으로까지 使用되게 되었다.

• 三句 - 八句에서

「脚烏烏四是良羅
 二盼隱吾下語叱古
 二盼隱讚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는 猥褻的인 것이면서도 諧謔性을 가지고, 無常한 人生이 龍王神의 自然神과의 打合을 圖謀함이며 이러한 思想의 밑바닥에는 道家의 無爲自然說이 支配하고 있다.

① 龍

薯童謠와 處容歌는 其 發生의 動機로 보아 前者는 戀愛的인 것임에 對하여, 後者는 除疫手段으로 되어 있으나, 其 構造의 表現은 愛情의 것이며, 同一한 龍觀이 깔려 있다. 그러면 이 龍은 우리 나라 傳來로 生産性과 關係가 깊으며, 옛부터 龍은 水神의 이미지를 지니는 同時에 風雲造化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存在로서 大陸民族의 信仰의 對象이었던 것이다.⁵⁸⁾

「東海龍喜 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其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⁵⁹⁾

「第三十武王名璋 母寡居 第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 小名薯童」⁶⁰⁾

「龍奉夫人出海獻之 公問夫人海中事 曰七寶宮殿 所饌甘滑香潔 非人間煙火 此夫人衣襲異香 非世所聞 水路姿容絕代」⁶¹⁾

龍은 自然과 聯關된 想象的 動物이다. 그리고 이것은 生産的 意味를 가지고 우리 나라 傳說, 神話, 說話 가운데 많이 나온다.

58) 『韓國文學背景研究』(上), 朴晟義, p. 68.

59) 三國遺事 卷2 處容郎, 望海寺.

60) 三國遺事 第二 武王條.

61) Ibid, 第2 水路夫人

「龍 鱗虫之長 春分而登天 秋分而入川 順也」⁶²⁾

「黃龍者 四龍之長 四方之正色 神靈之情也 能巨細 能幽明 能短能長 乍存乍亡 王者不灑池而漁 德達深淵 則應和氣而游於池沼」⁶³⁾

「거북은 따라서 原初의인 물의 生産性を 象徵하는 水神인 듯하여 龍 思想이 傳來되기 이전의 土着的인 水神의 이미지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⁶⁴⁾

「흔히 男性 性器 앞 部分을 “龜頭” “龍頭”라고 말하여 그 形態上으로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런 점에서 龜旨歌의 거북의 머리는 男根崇拜의 상징(phallie symbol)으로도 볼 수 있다」⁶⁵⁾

三國遺事 卷第二 水路夫人條에 있는 水路夫人의 海龍忽攬의 일과 衆人唱海歌詞 龜乎龜乎出水路의 거북(龜)의 關係에서 此種說話를 짐작할 수 있다.

即 龍이 얽힌 此類의 說話等은 天然崇拜(Nature worship)와 精靈崇拜(animism)와 靈力說(Manaism)과 스펀서의 宗教心理的 敬異感과 想像力에 起因한 進化論의 快樂說과도 融合된 것이라 하겠다.

IV. 鄉歌 愛情詩의 浪漫性 內質

歌 名	緣 故 材 事件의 契因	自然的素材	人 物	愛 情	倫 理 觀	宗 教 的 性 質
暮 竹 旨 郎 歌	轉生說話 胎夢 竹旨郎, 居士	지나간 봄 고을던 얼굴 주름진 다복썩	竹旨郎 得鳥	離別 男子와 男子	輪廻緣起 友 情	佛 教 自 然
讀 善 婆 郎 歌	善婆郎 (image)	구름을 헤친 달 넷 자갈, 잣나무 가지, 서리	善婆郎 忠談師	離別 男子와 男子	友 情	自 然(仙) 人 事
怨 歌	菘	잣나무 달 그림자, 옛옷	孝成王 信 忠	離別 男子와 男子	君臣間情	自 然 人 事
願 往 生 歌	無量壽佛 西方阿彌陀佛	달님 소나무 그늘	廣德 嚴莊 女	離別 女子와 男子	俗情과 佛心	佛 教
祭 亡 妹 歌	彌陀刹, 笛 修道, 紙錢	초가을 바람 지는 이파리 달, 해	妹 月明師	離別 女子와 男子	兄妹情宜	佛 教 自 然
馨 童 謠	池龍, 謠 金一斗	馨 蘋	善花公主 武王(馨童)	戀愛 女子와 男子	成 婚	仙 教 人 事
處 龍 歌	東海龍七子 開雲浦龍船佛寺 疫神	바다, 구름	美女 處容 疫神	戀愛 女子와 男子, 疫神	男女情事	佛敎, 自然 仙敎

1. 作品이 諸宗教思想的 土臺 위에 構造되어 있다.
2. 作品의 形象化에 있어 自然的素材가 全作品에 絶對的 比重을 크게 가지며 作品展開와 絶

62) 『故事成語辭典』中 龍部〈說文〉 p. 229.

63) Ibid, 〈瑞應圖〉

64) 「韓國神話의 原初意義」, 全圭泰, p. 228.

65) Ibid, 229.

頂 및 解消에 決定的 位置를 차지한다.

3. 作品 가운데 人物의 行動에 있어 人生的 意志에서 成熟해 나가기 보다 信仰에서 宿命的意志로 解決지어져 간다.

4. 宗教的素材는 佛敎, 道敎로 因하여 더욱 明瞭性이 維持되고, 바로 이 自然的 素材는 우리 나라 原始巫俗宗教의 바탕이 된다. 儒敎性은 倫理敎行에만 보인다.

5. 鄉歌全般에 있어 呪歌 巫俗行爲는 神秘性을 가지고 모든 宗教를 潤色하며 作品을 進行 또는 結定지워 美化시킨다.

6. 中國을 통해 輸入된 諸宗教는 우리 나라에서는 土着化되며 우리의 固有性을 간직한다.

페이터는 「浪漫的 精神의 要素는 好意의 念과 美의 사랑이다」고 했으며 이것은 바로 想像力과 熱情의 感動의 衝激으로 美에 對한 憧憬을 일으킨다.

「浪漫主義의 藝術은 平民化된 것이며」

「冷却된 知識을 물리치고 熱烈奔放한 情緒의 움직임에 마져 또 까다로운 人工을 물리치고 있는 그대로의 自然으로 되돌아 가게 한다.」

「그것(感情)은 自由스럽게 되어 생각하는 대로의 想像으로 飛躍할 수 있다」⁶⁶⁾

「어떤 光景을 볼 때, 나는 窓門을 따져 살피지 않듯이 내 肉體의인 눈 혹은 營生기능을 가진 눈을 따져 살피지 않는다」⁶⁷⁾

「想像力의 눈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表面的 現實을 넘어서는 內在的 理想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⁶⁸⁾

「自然과 나를 同一化시키지 않고 어떻게 내가 生存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事物은 살아 있고 모든 事物은 서로 조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磁力들은 내 自身이나 또 被造物의 無限한 連繫에서부터 아무런 抵抗없이 橫斷하여 放出한다」⁶⁹⁾

「浪漫主義의 思想은 詩人 노바리스(Novalis)에 의해서 가장 端的으로 볼 수 있다. 그는 世界야말로 神의 美的 空想에서 産出되어진 大藝術의 作品으로 보고 따라서 世界의 眞實에 이를 수 있는 것도 또한 奔逸한 空想, 豐富한 感情에 따르지 않으면 안됨으로 “詩는 眞實絕對의 實在라는 것, 이것이 나의 哲學의 精隨이라”고 말하였고 또 詩는 哲學의 主人公이며 哲學의 根本法則이다」고 말한다. 自然이 우리에게 理解될 수 있는 것인 限, 自然의 本質은 우리 人間의 本質과 같은 靈이며 우리들의 靈, 우리들의 想像力의 가운데는 山이라도 옮길 수 있는 일임을 믿고 있었다」⁷⁰⁾

以上에서 人間의 靈의 <그리움>은 먼저 自己에게 激烈이 꽃피우고, 다음으로는 社會으로 自然으로 神에게로 擴大되어 나갔다. 이렇게 하여 個人의 꿈은 集團의 感興과 想像의 未來世界를 憧憬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서로 사랑했다. 다시말하면 新羅民은 그들의 生活에 挑戰함에 있어서, 不可抗力의 限界性에 마주칠 때, 無限한 宇宙와 神秘한 自然과 그 속에 内在해 있을 絕對者 神앞에서 두

66) 近代文藝十二講 pp. 127 ~ 130.

67) Romentism by Lilan R. Furst, 李相沃譯.

68) Ibid, p. 51.

69) Loc cit J.W Beath the Concept of Nature in Ninetenth centry Fngeish Poetry (N.Y 1936) pp. 176 ~ 177 Cerard Nerval Aurelia.

70) 『美學及 藝術學史』, 大西昇, p. 138.

러워 하면서도 서로 依支하여, 渴望하는 〈所願풀이〉를 하게 되었고, 그들의 독특한 環境 속에서 그들이 가지는 生活樣式으로 場所를 배설하고 한 바탕 큰 잔치를 올려야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으로 除疫逐鬼하고 迎福 安住함을 얻는 것으로 믿었다.

이것이 바로 巫歌 巫俗의 諸行爲 儀式이며, 이것은 儒·佛·仙을 融合하므로 新羅鄉歌의 發生 土 전이 되었던 것이다.

① 自然物에 對한 畏敬이 어떤 靈的 存在를 想定하고 神格化 시킴으로서 생기는 一種의 自然發 生的 原始信仰

② 鄉歌를 神聖視하고 呪術視하는 傳統的 遺風

③ 儒·佛·仙 三敎야말로 우리 東洋思想의 根幹이 되는 것이며 우리 國文學의 背景的 作用을 하게 되었다.”⁷¹⁾

結 言

本稿에서 鄉歌愛情詩를 一考해 왔으나 新羅人은 自然을 지극히 사랑할 줄 알았고 現實을 美化하여 그들의 固有한 文化를 形成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은 歌詞現存의 鄉歌가 均如의 普賢十願歌 十一首 外에 三國遺事所載鄉歌 十四首 밖에 없되지는 各樣各層의 人物들이 參與하여 各自 特異한 個性과 情意와 表現力을 다하여서 豊富하게 想像力을 驅使하며 美化해, 모든 環境文化를 幅넓게 受容하여 가면서도 民族的 固有性을 最大公約하에 놓았었다. 그들은 「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했고 「修集鄉歌 謂之三代目」하였는바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無一草屋 笙歌不絕道路」했느니 此로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歌舞好樂하며 闊達했던 가를 알 수 있다.

그 가운데로 사람 사이에 맺인 因緣은 必然的 因果 緣起에서 맺어지고 人生必死의 運命에서 만나며 떠남의 기쁨과 구슬픔을 사랑으로 結紐하여 永續치 못할 現世에서나마, 오직 信仰的 宗教心情으로 絕對化하는 世界로 만들어 놓고 있다.

「國有玄妙之道 曰「風流」說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冠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者 周柱史之字也 諸惡不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⁷²⁾

이렇게 하여 그들은 廣闊한 慶州 平地에서 말을 달리며 雅致있는 멋부리와 우리 살림을 豐饒하게 누리고 굳센 激情을 다뤄가며 大新羅 統一을 이루어 新羅特有的 浪漫的 藝術의 精華으로써 鄉歌文學을 본 것이다. 그 속에 이루어진 近근함으로 감초인 서로의 사랑의 妙味와 가냘픈 曲線의 雅致, 潑刺한 創造의 手法, 豊富한 想像力, 深奧한 信仰의 理想의 結實을 吟味해야 한다.

71) 『韓國文學背景研究』(上), 朴晟義, ① p. 276, ② p. 294, ③ p. 35. 鸞郎碑序

72) 鸞郎碑序·三國史記 卷六四 眞興王條

參 考 文 獻

- 『比較文學』, 全圭泰.
- 『語文論集』, 中央大學刊
- 三國遺事
- 三國史記
- 『朝鮮漢文學史』, 金台俊.
- 『韓國文學背景研究』(上)(下), 朴晟義.
- 『韓國文學의 思想的研究』(上)(下), 東國大發刊
- 『麗謠箋注』, 梁柱東.
- 古今注
- 增補文獻備考
- 『韓國文學研究方法論』, 吳世榮.
- 舊約聖書
- 『新羅佛教文學研究』, 金雲學.
- 『鄉歌詳解』, 金俊榮.
- 大正新修 大藏經
- 『古歌研究』, 梁柱東.
- 『韓國漢文學史』, 李家源.
- 『韓國民論史』, 任東權.
-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金烈圭.
- 『韓國歌謠의 研究』, 金東旭.
- 『韓國神話의 原初意識』, 全圭泰.
- 『故事成語辭典』, 權相老·張道斌監修(學園社)
- 鸞郎碑序·三國史記
- 『美學及 藝術學史』, 大西 昇
- 『大乘起信論講話』, 井上專精
- 『盤苦心經講義』, 洪秒法藏
- 『道德經』, 老子
- 『楚辭集注』, 朱喜撰
- 『文學と 藝術の 心理學』, 大橋 幸
- 近代文學十二講
- 『精神分析入門』,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Sigmund Freud. 李庸護譯
- 『Romantism by Lilan R. Furst』, 李相沃譯
- T. W Beath the Concert of Nature in Nimenenth Centry English Poetry(N. Y 1936)